

훌륭한 기사를 잃었다

의정단상

강수훈
광주시의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 KBS 보도국 기자 A입니다. 오며 가며 인사드렸는데,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는 건 처음이네요. 혹시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는 활기찼고, 계속되는 질문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오갔고,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긴 했지만 조금 뜬금없다고 느끼기도 했다. 의정활동 중에 노점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물었다. “저 말고도 인터뷰에 응해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나요?” 그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으면서 함께 공부하며 제도과 정책을 만들어 갈 사람을 몰색하다가 연락했다”고 밝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기대도 있었지만, 정작 영상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전화를 끊을 때에는 부담이 더 크게 다가왔다.

사실 나는 이전부터 그의 세평을 많이 들어왔다. 5·18 민주항쟁과 관련한 증언을 2년동안 영상으로 기록했고, KBS 연중기획보도 ‘영상채록 5·18’로 5·18연론

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을 주최한 5·18기념재단은 “5·18진실규명운동 과정에서 5·18의 구술기록이 현재 5·18의 진실규명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 것처럼 5·18 아카이브 자료로 평가한다”고 수상작 선정 이유를 밝혔다. 광주·전남기자협회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검토단에도 참여를 했다. 그는 꾸준함과 진정성을 겸비한 기자였다.

그 외에도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포르말린의 위험을 보도한 ‘백혈병 양식장 노동자 포르말린의 위협’으로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을만큼 용기있고, 진실된 기자였다. 올해 4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진행한 기획 보도 “멈춰버린 엄마의 시간” “세월호를 마주본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는 특유의 감수성이 돋보였다. 2년 전 이태원 참사 때에는 “딸 휴대폰 열어보니, 역장 무너지는 유족”을 보도하며, “어이없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묻고 답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유족들은 온전한 슬픔의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라고 리포팅을 마쳤다. 뛰어난 공감능력으로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시대를 이야기하는 참기자였다.

그의 서사를 알고 있었기에 기대 반, 부담 반으로 인터뷰에 참여했다. 인터뷰를 하기 전 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이라며 각종 기사와 자료를 미리 보내줬다. 스티디 조장이 사전에 학습할 내용을 미리 제공하는 것 같았다.

2주 전, 시의회 의원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한 뒤 받은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사는 역시’였다. 내 생각을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질문을 이어갔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올바른 답을 함께 찾길 바라는 간절함도 느껴졌다. 그로부터 이틀 뒤, 해당 인터뷰는 “사라지는 봉어빵, 노점 허가제 논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뉴스가 나갔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문자로 보내줄 만큼 섬세함도 갖춘 기자였다.

그런데 그 리포트를 끝으로 그의 보도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2월 29일,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주노동자 등 소외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시사교양PD였던 남편의 이름과 함께였다.

산 자료서의 책임감으로 그가 유언처럼 남긴 노점 허가제에 대해 깊게 고민할 생각이다. 문득 그의 SNS를 살펴봤다. 수년 전,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 적이 있었다. “세상에 자신의 유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싸움은 그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싸움의 지속은 타인의 유서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정치하는 내게 그가 보내줬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그렇게 유서처럼 다가왔다.

우리는 훌륭한 기사를 잃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여,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길. 모든 고통을 잊고 자유롭게 평온하시기를.”



사진으로 보는 세상

새해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버번 스트리트에서 한 차량이 새해맞이 인파 속으로 돌진해 파손돼 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고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으며 범인은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미연방수사국(FBI)은 해당 차량에서 이슬람국가(IS) 깃발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P/뉴시스

서석대

“해야 솨아라 해야 솨아라/말갈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솨아라/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이글이글 옛날 얼굴 고운 해야 솨아라...” 정록파로 활동하던 시인 박두진이 시 ‘해’를 쓴 것은 1946년 새해 첫날 아침이라고 한다.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암흑기를 겪었던 박 시인. 그에게 8·15 광복 이후 맞는 첫 설날 아침, 어둠을 박차고 불끈 솨아오르는 아침 해는 벽찬 감동을 안겨 줬으리라. 밝고 따뜻하며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꿈꾸는 지식인의 마음도



일과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1년의 시작이다. 하지만 정작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지난 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절망을 안겼고,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가의 미래마저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침체의 골 또한 험사리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좁은 나라에서 횡행하는 세대와 계층, 종교와 이념, 빈부격차 등 온갖 갈등도 쉽게 아물 것 같지 않다. 그야말로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다.

1969년 김종길 시인이 발표한 ‘설날 아침’도 새해가 주는 희망과 다짐이 곳곳에 담겨있다. “세상은/힘난하고 각박하다지만/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좀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는 시인의 시어는 새해 한 살씩 더 먹는 모두에게 주는 행복한 덕담이다.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한 해가 지고/또 울지라도/어린 것들 잇몸에 돌아나는/고운 이빨을 보듯/새해는 그렇게 맛을 일이다...”는 구절도 어린아이의 잇몸에서 새하얀 이가 올라오는 기적처럼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싶다는 시인의 염원이 담겨있다.

2025년, 또 다시 한 해가 시작됐다. 지난 해 겪었던 곳은

새해 아침에

김종길 시인은 ‘설날 아침’에서 “어름짱 밑에서도 고기가 숨 쉬고/파릇한 미나리 씹이/봄날을 꿈꾸듯/새해는참고/꿈도 좀 가지고 맛을 일이다...”고 했다. 매서운 추위를 참고 견뎌낸 파릇한 미나리처럼 모두가 삶의 기쁨을 즐기고 올라가야 한다는 스스로의 각오 일 것이다. 그 비탈진 고개 너머에 오르면 봄과 꿈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노래이기도 하다. 어느 때보다 우울하게 맞는 2025년의 새 아침. 주변의 묵은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을 쫓아 새로운 1년을 시작해 보자. 세상을 한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무리 힘든 비탈도 언젠가는 넘을 수 있다는 희망만은 잃지 말자.

이용환 논설실장

社說

희생자·유족 향한 SNS 악플 강력 처벌해야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추락 사고로 대한민국이 큰 슬픔에 잠겼다. 승무원·승객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추락 사고로 대한민국의 시계는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섰다. 그런 사이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끔찍했던 추락 사고 모습에 무기력해진 일상, 슬픔에 잠긴 유족을 향한 안타까움은 지속되고 있다. 조금이나마 위로를 나누고자 사고 현장에서 음식 등을 나르고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긴 추모 행렬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들이 끔찍했던 사고 현장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게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이다.

하지만 슬픔과 고통, 위로가 공존하는 동시대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악플과 유언비어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들짐승도 자식이나 무리가 죽으면 눈물을 보이는 법인데 어찌 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로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니 어디 가당찮은 일인가.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족을 모욕하는 악성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관용 없이 엄정 수사한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유언비어, 악의적 비방·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 4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추적, 신원을 확인하는 즉시 모욕 혐의로 입건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음해성 글 125건에 대해서는 삭제·차단했다고 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법률지원단을 꾸려, 유언비어, 비방성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증거를 모아 이달 중 고소·고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용서와 관용은 사치다. 참사 유가족을 향한 조롱과 악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일이다. 비탄에 빠져 있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건 국민적인 위로이지 이에 반하는 행동은 인간임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초고령사회, 반가운 장성 공공복지 주택

월 10만원 누리타운 전국 관심

월 10만원의 임대료로 운영되는 장성 노인복지주택 ‘누리타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누리타운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에게 영구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공공복지주택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선도하는 장성군의 선견지명이 반갑다.

누리타운이 주목받는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에 있다. 통상 실버복지주택의 1인 월 임대료는 적게는 180만원에서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의 임대료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부부가 사는 35㎡의 경우 보증금 1028만~1531만원에 월 8만6000~12만8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한 이유는 장성군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주거와 복지, 보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누리타운이 운영하는 경로식당도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늪에 빠진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 20%를 기록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된 저출생·고령화다.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의료와 요양의 협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주거와 의료, 각종 돌봄 등이 완비된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노인복지 현실과 극명히 비교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우리 사회 전체가 생애주기상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해 각 기초자치단체는 장성군의 성과를 본보기 삼아 초고령사회 고령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령층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는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전체 인구 가운데 다섯 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성군의 사례처럼 노인 주거복지를 혁신적 아이디어로 새롭게 짜는 것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